

다자이후 덴만구와 안라쿠지 사원

다자이후 덴만구는 스가와라 미치자네(845-903)를 모시는 일본 전국에 12,000 개가 넘는 덴진 신사의 총본사입니다. 미치자네는 덴진으로 신격화되었으며 학문과 문화, 예술의 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입니다. 미치자네의 사후, 유해를 소달구지에 싣고 가던 중 소가 길에 누워 꿈쩍도 하지 않자, 미치자네의 시종이 바로 그 자리에 자신들의 스승을 땅에 묻고 미치자네를 모시기 위한 사당을 세웠던 것이 시초입니다.

미치자네의 사당과 주변은 오랜 세월이 걸쳐 불교 사원인 안라쿠지 사원이 있던 곳에서 오늘날 다자이후 덴만구의 시설이 자리한 장소로 발전했습니다. 일본에는 미치자네를 모시는 덴진 신사가 많지만, 미치자네의 진정한 안식처는 이곳 다자이후 덴만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안라쿠지 사원에 대해 설명한 현존 문서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1555년에 제작되었으며 경내에서 출토된 한자로 '안라쿠지(安樂寺)'라고 적힌 지붕기와 중 일부를 통해 기록을 뒷받침합니다. 다자이후 덴만구에는 아치교 등 불교적인 특징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아치교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시 하나의 마음(생각)을 지니는 불교 이념을 반영합니다. 첫 번째 아치교는 과거를, 평평한 다리는 현재를, 그리고 두 번째 아치교는 미래를 의미합니다.